

미르·K재단 실체, 모금 경위, 사유화 의혹 규명 초점

‘최순실 게이트’ 칼 빼든 검찰 수사 주안점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외 개명)씨가 대기업들이 800억원대 거금을 출연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대기업들이 이들 재단에 거액을 몰아준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최씨가 직접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회사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검찰도 강제 수사권을 활용한 본격적 수사에 돌입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두 재단 800억 누가 왜 ‘몰아줬나’ = 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혹의 초점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창립, 모금 경위에 주로 맞춰졌다.

미르는 작년 10월, K스포츠는 올해 1월 각각 설립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는 통상 3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부는 담당자를 굳이 서울로 출장 보내면서까지 두 재단의 설립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800억 모금 ‘보이지 않는 손’

개인회사 세워 돈 빼낸 의혹

두 재단 실소유주 등 밝혀야

모금액 역시 국내 재계 순위에 따라 출연한 62개 대기업마다 맞춰 사실상 할당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면서 자발적 기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경제수석이던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본인인 부인하고 있지만 모금 배경으로 의심받는다.

◇최순실·차은택, 두 재단 ‘실소유주’인가 = 모금 단계를 넘어가면 양대 재단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의혹의 초점이 맞춰진다.

문화 사업을 한다는 미르재단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급부상한 차은택(47) 광고 감독이 직·간접적으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피어오른다.

사이 등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 제작자로 널리 알려진 차씨는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이듬해 4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돼 단박에 문화 및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부에 진입했다.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으로 넘어오면 의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최씨 역시 K스포츠재단과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재단의 2대 이사장이었다가 최근 논란 끝에 사임한 정동춘(55)씨가 최씨가 주로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센터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개입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다.

게다가 재단의 가까운 거리에 세워진 더블루케이, 독일에 세운 더블루케이 독일법인과 비테스포르츠의 존재가 최근 알려졌다.

독일 기업정보 사이트인 콤파리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스포츠 인재 육성, 스포츠 교류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 비테스포르츠는 최씨 모녀가 가진 개인 회사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최씨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모금한 돈을 자신의 개인회사인 비테를 통해 빼내 쓰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신문은 국내 4대 그룹 중 한 곳 관계자가 “K스포츠재단이 올 초 ‘2020 도쿄 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 사업에 80억원 투자를 제안하면서 사업 주관사는 독일의 비테스포르츠”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씨 딸인 정유라(20)씨의 특혜 입학, 부실 학사 관리 등 의혹이 불거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낙마한 가운데 일부 교수·학생들이 부정 의혹 수사를 주장해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전해철 민주당 ‘최순실게이트·편파기소 대책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향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식, 안호영, 전해철, 박범계,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국정원장 발언 이후 ‘회의록’ 공방 가열

새누리 “文 진실 밝혀야” 민주당 “또 정치공작”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후 여야 간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은 있는 비밀도 지키는 자리인데, 여당 의원들이 유도한다고 해서 사건을 피력하면 일반 국민은 뭔가 근거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면서 “또 전형적인 정치공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지난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국가정보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명제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검찰에 권고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

문 전 대표는 “(여당 공세) 이유는 딱 하나다. 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궁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며 “이병호 국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청와대와 정부도 가세하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씨 모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가시스템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 긴 세월을 통해 하나씩 발전시켜 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아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기자, 기존의 무대응 전략에서 정면돌파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엄청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호기호위하고 다닌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최씨를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제작년 정운회씨, 이번에 최씨는 모두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한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ju.co.kr

이정현 “모든 의혹 검찰 수사로 판정”

문재인 “崔게이트에 국민 분노 폭발”

위원장을 거명하며 “박 대표처럼 무죄 판결을 받으시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지 않느냐. 의혹 제기 받으면 다 사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아당처럼 계속 반복하면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안 하면 침묵이라 하느냐”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송

민수 회고록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 분노는 거의 폭발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10년 전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과 종북 논쟁에 빠져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른다. 정말 찌질한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야의 최대 현안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우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0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해서 판정할 것 아니냐”면서 “수사를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도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안보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엄정하게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문제없으면 정치·정략적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

朴대통령 “재단자금 유용했다면 엄벌”

한달만에 최순실 의혹 발언... 정면돌파 나서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최순실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두 재단 의혹에 최씨가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달 20일 처음 나온 지 꼭 한 달 만이다.

야당이 최씨를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비화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속고해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 더 이상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광주천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